

혼조조카마치 해설판 고토쿠지 유적

현재 이시와키 고토쿠칸(石脇公德館)은 에도시대 때 세키호잔 고토쿠지(石宝山光徳寺)라 칭했던 수행사원터입니다. 당시는 신불습합(神仏習合)의 시대로 고토쿠지의 승려가 이시와키 나카마치의 이나리 신사(稻荷神社), 산겐마치의 신메이사(神明社), 미도리마치의 사루타히코 신사(猿田彦神社), 벤케이가와의 아키바 신사(秋葉神社), 다지리의 곤피라 신사(金比羅神社) 등의 신관으로 있었습니다.

메이지유신 후, 신정부는 신도와 불교를 구분하여 예로부터 있던 신도를 기초로 하는 사교방식으로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신불분리령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 고토쿠지는 폐사되었습니다.

메이지 39 년(1906 년)에 이시와키 구회조례가 제정되어 이시와키 재산구가 탄생했습니다. 이 재산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구 고토쿠지는 「고토쿠칸(公德館)」으로 개칭해 이시와키 지구의 집회시설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회의장소로도 이용되는 한편 메이지 40 년에는 요배전(遙拜殿)이 증축되어 신잔 신사의 제전이나 제사에도 활용되게 됩니다.

쇼와 30 년(1955 년), 이시와키 재산구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고토쿠칸에 이시와키 최초의 보육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보육원은 31 년에 혼조중학교 동쪽으로 신축 이전하여 이시와키 보육원(현재의 이시와키 히가시 보육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시와키 고토쿠칸은 쇼와 44 년(1969 년)에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큰 홀, 중간 홀, 요배전, 응접실, 조리실을 갖추고 각종 행사장이나 회의장, 제전행사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구 고토쿠지 시대 흔적을 보여주는 가구라덴(神楽殿) (오른쪽), 에비스도(恵比寿堂) (중앙), 다이시도(太子堂) (왼쪽)가 있습니다. 가구라덴에는 이시와키카구라의 머리가 모셔져 있고 에비스도는 나카마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숭배하고 있으며 다이시도는 오랫동안 이시와키 목수들의 숭경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라덴 옆에는 「조카이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큰 비석이 있어 구 고토쿠지와 조카이 수행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불습합(神仏習合)이란 일본에 원래 있던 신의 신앙인 신도와 외국으로부터 전해진 불교의 신앙이 하나가 된 종교의 사교방식으로 나라 시대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불분리령이란 신불습합의 관습을 금지하고 신도와 불교, 신과 불, 신사와 사원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 설명판은 공익재단법인 동일본철도문화재단의 지방문화사업 지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